

# “청년이 미래다”...살고 싶은 해남 만들기 ‘박차’

## 공공임대주택 건립·청년마을 조성 등 역점사업 속도 청년두드림센터 청년 역량강화 커뮤니티 자리매김

해남군이 청년이 다시 찾고, 살고 싶은 해남 만들기를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청년팀을 신설한 해남군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정

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정

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인 ‘농농길 청년복합공간 조성’도 많은 관심 속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황산면 옥동마을 인근을 청년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교된 옥동초등학교 별관을 개축해 청년 복합공간으로 거점화하고, 인근 옥동, 삼호, 옥연마을 일대 빈집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창업 및 거주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공간 조성에 앞서 전국 예술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페스티벌과 캠프 등도 활발히 진행돼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청년두드림센터는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두드림센터에서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한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을 비롯해 마음·일상·취업 등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받고 있다.

최근에는 면접장대 대여사업, GTQ, 전산회계, 드론 자격반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일 경험 드림’사업과 창업 초기 부담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해남청년창업 지원’사업도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데 이어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첨단기업 유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 일자리와 정주여건 확충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청년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군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2030프로젝트와 맞물려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목포시 ‘소수직렬 승진’ 하반기 정기인사 ‘잡음’

## 직급경력 두배 차이 불구 승진...사회복지 분야 타 업무 전보 등도

목포시가 15일자로 단행한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특정 소수 직종승진 등에 따른 뒷말이 나오고 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삼아 조직개편으로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등 1과, 1과 신설이 주요 골자다.

이 밖에 기능과 업무특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통솔 범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기획청년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경제수산업환경국은 미래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업환경국으로, 안전도시건설국과 도시발전사업단은 도시공원국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승진 86명, 승진의결 82명, 전보 306명, 신규임용 23명 등 총 422명 규모의 정기인사도 단행했다.

직급별 승진 및 승진의결 인원은 ▲4급 2명 ▲5급 9명 ▲5급 및 학예연구관 승진의결 8명 ▲6급 16명 ▲7급 25명 ▲8급 33명 등 총 93명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하반기 승진과 승진의결, 전보 등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친인척 찬스, 측근 챙기기, 평가 크기, 원치않은 인사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소수 직종에서 당해 직급 경력 차이가 두 배나 되는 데도 승진의결되거나 이번 승진인사로 특정 소수직종 국장을 2명이나 차지하는 인사, 승진의결인 중 주요 업무기여도 면에서 납득이 안 가는 원치않은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선 7기에 5급 승진한 직원 중 일부는 동장으로 수평 이동을 계속

하거나 파견인사, 6급 주요보직 직원 중 일부가 계속된 좌천성 인사(?) 등으로 평가가 인사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직렬을 무시하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보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모두 행정직렬이거나 보건, 복지, 농촌지도직이 타 업무로 전보되거나 보직돼 있어서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2년이 지난 인사과장직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인사과장은 특별한가요?”, “인사장 동장 안하고 국장갑건가요?”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목포시청 한 직원은 “이번 인사에 친인척찬스, 측근챙기기, 평가크기,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설들이 무성하다”며 “소수직렬 6급 팀장이 당해 직급 경력에서 차이가 두배 이상 나는 데도 승진의결되거나 특정 소수직종 국장을 2명이나 차지하는 발탁 승진인사, 민선 7기 5급 승진자 중 일부가 동장으로 수평이동을 계속하거나 파견인사, 민선 7기 6급 주요보직 직원 중 일부가 계속된 좌천성 인사(?) 등 평가크기식 인사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원치않은 인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이번 인사는 적재적소 배치와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며 “개편한 조직을 통해 목포가 기업은 물론, 청년과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군은 오는 28일까지 1004섬분재정원에서 2000년 주목나무 특별전을 개최한다. 2000년 된 주목나무는 독특한 모습과 역사적 가치로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제공>

## 세월이 주는 아름다움...신안군 ‘2천년 주목나무’ 특별전

28일까지 1004섬분재정원서

신안군은 14일 “오는 28일까지 1004섬분재정원에서 2000년 주목나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최고의 주목

분재 작품들과 함께 보호실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2000년 된 주목나무가 전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주목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특성과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목나무는 그 특유의 아름다운 자태와 뛰어난 생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목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으로 오는 길 주변에 여름꽃인 크

로코스미아가 주황색 물결을 이루며 방문객들을 반긴다.

이번 전시의 주목작인 2000년 된 주목나무는 그 독특한 모습과 역사적 가치로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004섬분재정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로 꼽힌다. /신안=양훈기자

## 완도군,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영예

###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개관 등 해양치유산업 선도

완도군이 전국 최초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며 지역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도군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돼 혁신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

역 발전을 이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며, 민간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평가는 행정 혁신, 문화 관광, 복지 보건, 지역 개발,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해 1차 정량 평가와 2차 정성 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 공적 인터뷰 등으로 진행했다.

최종 심사 후 종합 대상과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며 완도군은 모든 평가 항



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1위에 해당하는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래 전략사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2015년부터 9년간 준비해 왔다.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개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완도=윤보현기자

## 영암군,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농가당 최대 3천500만원

영암군은 14일 “오는 8월9일까지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

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신청은 생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송아지 10만4천450원이며 농가당 3천500만원, 농업법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은 빠짐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동네 지키자”...무안 주민 치안협력 강화

### 읍주민자치위원회-지역경찰 ‘우리동네 지키기’ 시범 사업 운영

무안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무안 승달과출소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동네 지키기’ 시범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동네 지키기’ 시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치안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인 무안 승달과출소장은 “실종 사건 및 교통 사고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정보교류와 현장 수색 지원 활동으로 경찰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무안=김상호기자



어성준 무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일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삼복더위 타파’

### 수산물 최대 40% 할인·물놀이장 운영 등 특별 이벤트

강진군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서 여름 맞이 수산물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내 매일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는 삼복더위 극복을 위한 싱싱한 전복을 최대 40%까지 특별 할인한다. 매일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각종 견어물 특별 경매를 열어 매주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육상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물놀이 에어바운스와 워터 슬라이드, 탈의실, 샤워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농부신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마량 전망대 카페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6월에는 버스킹, 커피데이를 진행했으며, 7월에는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를 갖는다. 마술쇼와 버블쇼 등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준비된다.

특히 올해는 AI포토부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LED바다분수와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아름다운 밤바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마량항에서 이번 8월10일(두족류)부터 11일(감성돔)까지 진행되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 낚시대회(예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